

창업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윤복만 (경운대학교 기초교양학부)¹⁾ 장영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²⁾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창업성장단계는 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 고도성장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8가지 유형(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시설공간, 정책자금, 사업화 지원, R&D지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 그리고 창업행사·네트워크)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자료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수집하고 있는 창업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가의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창업단계에 따라 창업몰입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창업기에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가들의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성장기 이후 단계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장단계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확인한 결과, 창업기에는 창업시설이 창업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초기성장기에는 창업시설과 사업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데스밸리 단계에서는 창업시설, 사업화 지원 그리고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도성장기에는 멘토링이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기여뿐만 아니라 창업기업들의 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와 효과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 등 창업 정책 및 제도적 지원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관리적 방안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중심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사업화역량, 창업몰입, 창업성과, 창업성장단계

I. 서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한 이후 창업자들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2016년 5,764억원에서 2024년 3조 7,12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의 창업지원 기관은 6개에서 2024년 103개로 증가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4). 이른바 정부가 창업 국가를 조성할 것임을 선포한 이후 창업자의 수는 증가하였다.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아이템, 창업자의 특성 등을 고려

1)제1저자 : 경운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bokmanii@kw.ac.kr

2)교신저자 :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yhj0918@kw.ac.kr

· 투고일: 2024-07-10 · 수정일: 2024-09-10 · 게재확정일: 2024-09-19

하여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창업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지원의 부족으로 창업가들은 초기창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창업 후 5년 이내에 50% 이상의 기업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패율은 창업 환경의 어려움, 시장의 변화, 자금 부족, 경영 노하우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성장과정에서 창업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제한적이다. 즉 창업의 지속성 그리고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업에 관한 선행연구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정경희(2020)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창업자금,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는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창업교육은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경선, 남정민(2023)은 창업성장단계별 성공요인을 ERIS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기에는 창업가, 자원, 산업 그리고 전략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특수역량과 일반역량 그리고 인적자원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성장기에는 창업가, 자원, 산업 그리고 전략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역량, 창업가정신, 인적자원과 조직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창업단계 가운데, 정체가 단계에서 필요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집중된 연구도 있다(장영혜 외,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창업성장 단계별 효과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창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창업성장 단계별로 유용한 창업지원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유형을 종합적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8가지 유형(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시설공간, 사업화지원, 정책자금, 판로·마케팅·해외진출, R&D지원, 그리고 창업행사·네트워크)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에는 주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들에게 대한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거나 기업가정신을 확인하여 창업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되었다. 대다수의 연구가 창업가의 특성이나 특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창업단계별 상대적 중요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또한 창업성장단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부지원사업이 아니라 창업성장단계별로 창업가들이 성공창업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창업성장단계별로 어떠한 창업지원사업이 창업기업들에게 유용한지 보다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8가지 창업지원 사업의 개별적 효과와 창업가의 역량과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성장단계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설계를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효과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과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인 사업화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창업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8가지 유형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8가지 창업지원에 대한 창업가들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들 창업지원 사업들이 창업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전체적 관점과 개별적 관점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 유형을 결정한다. 둘째,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과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한다. 셋째,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과 창업가의 사업화역량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창업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넷째, 창업성장단계별 8가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상대적 중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에 대한 이론의 구축과 창업성장단계별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창업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

정부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창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매년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2016년 5,764억원에서 2023년 3조 6,607억원). 창업지원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과 관련된 정보와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하는 등 창업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창업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지원 인프라는 주로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시설공간, 정책자금,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사업화지원, R&D지원, 그리고 창업행사·네트워크 등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룬 연구들에 많다. 예컨대, 유상정, 양해술(2016)은 시니어를 위한 창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지원보다 창업인프라 지원인 교육지원과 창업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승현(2014)은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창업성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경영과 교육지원 정책은 창업기업의 고용확대와 매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창업자금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을 때는 창업성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에서도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적 창업기업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역량 그리고 조직문화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있어 정부지원정책 활용도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김용태, 박재원, 2012). 김종식(2017)은 정부가 시행하는 창업지원정책 가운데 자금지원, 창업교육, 멘토링이 창업성고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창업가의 사업화역량

창업가의 역량은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들은 한정된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즉 창업가의 직장 및 창업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적 능력과 리더십 및 관리능력은 기업가정신과 함께 창업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Covin & Slevin, 1991). 창업가가 가져야 할 역량은 비전과 목표설정, 팀빌딩과 리더십, 기업가정신, 자금조달능력, 기업계획수립,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킹, 금융관리, 시장조사와 경쟁분석, 마케팅과 판매능력, 혁신과 창의력, 시간관리와 우선순위 설정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역량 가운데, 사업화역량에 집중하고자 한다. 창업가의 역량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창업업종과 관련된 전문적 능력을 비롯하여 기업가정신, 리더십,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경험 등 다양하고, 기업가정신 하나의 요건만 하더라도 다양한 하위요인들이 있다. 또한 이들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온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이다(김재홍 외, 2021).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은 기본적으로 생산화, 제품화, 마케팅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는 역량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공정능력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Yap & Sounder, 1994).

본 연구에서는 기술기반 창업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역량과 신규 시장개발(시장침투 및 확대) 역량을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으로 창업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2.3 창업몰입

창업몰입은 직무몰입 또는 조직몰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Williams & Anderson(1991)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

몰입은 직무만족보다 종업원들의 조직의 유효성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조직몰입은 조직원들의 태도와 실질적인 행동 사이에 비교적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직무몰입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몰입으로 인적자원관리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Kanungo(1982)는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면 조직과 자신의 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조직에서의 정체성도 직무에서 찾는다는 것을 조직몰입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업몰입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가의 마음상태에 대한 것으로, 자신이 창업 아이템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창업몰입과 관련해서는 창업가의 열정과 성공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데, 창업에 대한 열정이 높은 창업가들이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 끈기 등이 더욱 높다는 결과가 있다(안태욱, 강태원, 2019). 또한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멘토링, 사회적 지원 등은 창업가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지기도 하였다(장영혜 외, 2021).

2.4 창업성과

창업성과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다. 안태욱, 강태원(2019)의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소개하였다. 즉 재무적 성과인 매출, 수익률, 제품 수 등을 포함하여 제품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창업 분야가 다양하고 창업기업의 규모도 다양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창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대신해 Mahmood & Norshafizah(2013)는 창업가 스스로 자신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창업성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창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연구도 많은데, 창업성과의 영향변수로는 정책자금, 정부의 지원, 벤처캐피탈의 지원, 정부사업의 참여정도 등 다양하다(장영혜 외, 2019).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 스스로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만족감과 창업 이후 사업을 잘 이끌어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창업성과로 제안하고, 창업단계별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의 효과를 창업성장단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교육, 시설, 멘토링, 사업화지원, 정책, R&D 지원, 판로지원, 네트워크 등 8가지 유형에 참여한 창업가들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종합적 만족도와 개별만족도를 확인하여 창업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양한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것으로, 정부의 창업국가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은 기술기반 창업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신규 시장의 침투 및 확대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하여 창업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정부의 창업지원사업과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은 창업가의 창업몰입을 통해 창업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데스벨리, 고도성장기)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의 상대적 중요도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사업의 8가지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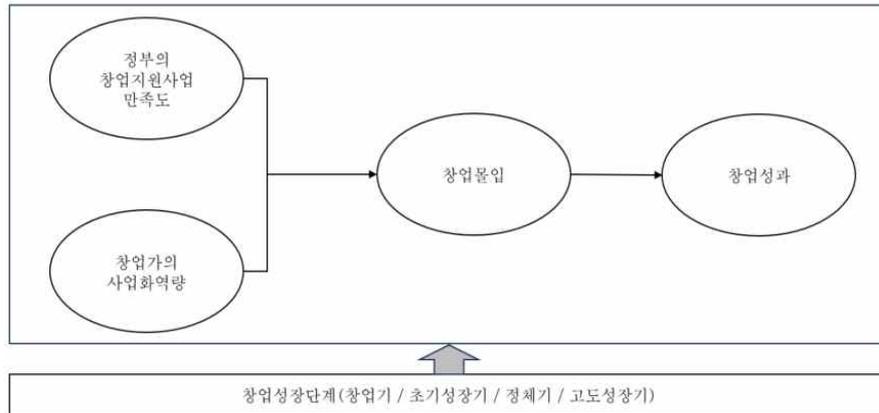


그림1. 연구 모형

3.2 가설설정

3.2.1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와 창업몰입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교육, 사후관리, 기술 전수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Johnson & Johnson, 1990).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기업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장영혜 외, 2020). 2023년 정부의 창업지원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하여 지원기관이 총 103개로, 중앙부처 14개, 광역지자체 17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유형별로는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시설·공간·보육, R&D, 정책, 판로, 멘토링,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창업 사업화 지원은 창업단계별로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하며, R&D 지원은 인프라, 기술·연구 개발, 자금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시설·공간·보육 지원은 창업을 위한 보육센터·메이커스페이스·사업공간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실습교육·실전창업, 메이커 창작활동 등의 지원을 의미하고, 멘토링은 분야별 전문 멘토링 지원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지원은 경진대회,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을 의미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24). 장영혜 외(2020)은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와 창업성과 간의 긍정적 관계를 고려하였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창업기업은 사업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 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사업화, R&D,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 네트워크) 만족도가 창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창업성장단계별로 창업지원 사업 유형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만족도는 창업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a. 창업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 정체가/데스벨리, 고도성장기)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만족도(교육, 시설, 멘토링, 사업화지원, 정책, R&D지원, 판로지원, 네트워크)가 창업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다를 것이다.

3.2.2 창업가의 사업화역량과 창업몰입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은 창업가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광고 등

마케팅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가는 역량을 말한다. Yap & Sounder(1994)는 사업화역량을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법을 만들어서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제품화 역량과 상품을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해 시장분석, 판로확장 및 배송설계 등의 마케팅역량 등이 사업화역량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김춘근 외(2014)는 기술창업 기업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보육 지원 시스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을 조직적 역량, 전략적사고 역량, 기술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기술적·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Chandler & Jansen(1992)은 창업가 역량의 하위요인을 기술·기능적 역량,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으로 제시하여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박순규 외(2015)는 사업화 역량의 선행변수로 R&D지원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R&D지원 정책과 사업성과 간의 관계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업화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긍정적 심리자본을 창업가의 사업화 역량으로 제안되어 창업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창업가들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새로운 시장의 침투 및 확대할 수 있는 사업화역량은 창업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은 창업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a. 창업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 정체가/데스벨리, 고도성장기)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3 창업몰입과 창업성과

창업몰입과 창업성과는 창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주로 종속변수의 역할을 한다. 창업몰입은 조직행동 분야에서 연구된 직무몰입 및 조직몰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창업몰입은 몰입의 대상이 자신의 사업에 집중된다. 창업성과는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행연구자들은 창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즉 재무적 성과인 수익률이나 매출, 제품 수 등을 포함한 제품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등이 일반적이다(안태욱, 강태원, 2019). 그러나 창업기업들에게 재무적 성과는 창업제품의 판매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수익률 또한 초기 창업가들의 경우에는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대신해서 Mohmood & Norshafizah(2013)는 창업가 본인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창업의 성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창업성과가 종속변수로 사용된 연구는 다양한데, 정책자금, 정부의 지원, 벤처캐피탈의 지원, 정부사업 참여정도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들이 성장단계별 지속적인 창업몰입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성과의 선행변수로 창업몰입을 제안하였다. 장영혜 외(2021)는 데스벨리 단계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창업몰입과 창업성과를 확인하였고, 창업몰입의 선행변수로 창업가의 기술창업역량인 동적역량, 민첩성 그리고 사업화역량 등을 제안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추가적으로, 대학생들은 주로 예비창업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대학생 대상 창업연구는 창업가로서의 특성과 창업교육에 집중된 연구가 많다. 즉 창업의지나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의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예컨대, 데스벨리 단계에서는 창업가들이 심리적으로 지쳐있어 창업몰입의 정도가 창업초기 단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예비창업자 단계에서부터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창업몰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창업가의 창업몰입은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a. 창업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 정체가/데스벨리, 고도성장기) 창업몰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4 창업몰입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창업성과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을 제안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창업몰입을 고려하였다. 창업가의 몰입에 따라 창업활동에 따른 성과가 다를 수 있고, 창업지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Csikszentmihalyi(2009)는 혁신적인 창업가일수록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몰입상태에서 뛰어난 혁신이 탄생한다고 하였다. 몰입은 프로젝트나 새로운 벤처창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몰입이론은 기업가정신 연구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창업성과, 창업만족 등을 유도하는 매개요인으로 활용되었다. 장영혜 외(2021)는 데스벨리단계의 창업기업들의 창업성과를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인 창업몰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창현, 양동우(2022)는 예비창업자의 성격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창업몰입을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창업가의 사업화역량과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는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몰입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높을수록 창업몰입도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창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창업몰입은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5. 창업몰입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의 출처는 <표1>에서 제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한 모든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가들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	문항수	출처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창업가 만족정도	8	· Oliver(1980) · Parasuraman et al.(1994)
창업가의 사업화역량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사업확장을 위한 생산 및 마케팅 역량	8	· 박순규 외(2015) · Yap & Sounder(1994)
창업몰입	창업가가 자신의 비즈니스에 열정과 헌신을 기울이는 정도	3	· Kanungo(1982)
창업성과	자신의 창업성과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의 정도	2	· Mahmood & Norshafuzah(2013)

우선,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가지 유형(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시설공간, 정책자금, 사업화 지원, R&D지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 그리고 창업행사·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전반적 만족도는 Oliver(1980)과 Parasuraman et al.(1994)에서 측정한 문항을 8가지 유형의 정부 지원사업에 적용하였다.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은 박순규 외(2015)와 Yap & Sounder(1994)에서 사용한 8개 측정문항을 본 연구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창업몰입은 Kanungo(1982)가 사용한 3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편 창업성과는 Mahmood & Norshafuzah(2013)가 제안한 창업자 스스로가 자신의 창업성과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측정한 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창업교육, 시설, 멘토링, 사업화 지원, 정책, R&D 지원, 판로지원, 네트워크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8가지 유형에 참석한 창업가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중앙값을 활용하여 재코딩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업화역량과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확인하였다.

3.4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창업가의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창업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의 상대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적 요인의 효과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실태조사 결과 가운데, 2022년 자료를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다. 조사는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창업기업들이 오프라인을 통해 응답한 결과이다. 특히 창업기업들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년도 다음 연도 연말에 결과 보고서가 발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활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창업성장단계 및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본 연구에서 제한한 핵심적 변수를 활용하였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실태자료는 총 1,159부가 수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창업지원사업 가운데 비교적 응답 비율이 높은 자료를 추출하여 최종 7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 22.0 과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EFA), 확인적 요인분석(CFA), Cronbach's α 값 확인, 상관관계 분석과 AVE 값 비교 등을 통해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를 확인하였다.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 방정식 모델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이들의 창업성장단계별 관계는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창업몰입의 매개효과는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8가지 유형 각각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성장단계별로 확인하여,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설계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5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응답자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대졸자가 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석사 및 박사학위자는 각각 20.1%와 7.8%로 나타나 고학력 창업자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의 전공은 공과 계열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응답자들도 27.4%와 16.1%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의 89.3%가 취업의 경험이 있었으며, 창업 준비 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 사이가 전체 중 66.6%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벤처인증 기업은 32.2%이고,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3.1%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창업성장 단계에 대한 응답은 창업기가 17.5%로 나타났고, 초기성장기는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체가/데스벨리기는 27.0%로 나타났으며, 고도성장기는 12.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성숙기는 15명, 쇠퇴기는 1명만이 확인되었다.

<표2> 응답자의 특성(n=701)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45	77.7	창업 준비 기간	1개월	21	3.0
	여성	156	22.3		2개월	106	15.1
학력	고졸이하	52	7.4		3개월	221	31.5
	초대졸	69	9.8		4개월	23	3.3
	대졸	384	54.8		5개월	222	31.7
	석사	141	20.1		6개월 이상	108	15.4

전공	박사	55	7.8	벤처	인증	226	32.2
	IT	81	11.6		해당없음	475	67.8
	공과	201	28.7	이노비즈	인증	22	3.1
	자연	79	11.3		해당없음	679	96.9
	인문사회	192	27.4	기업성장 단계	창업기	123	17.5
	예술	113	16.1		초기성장기	283	40.4
	기타	35	5.0		정체기/ 데스밸리 기	189	27.0
취업 경험	있음	626	89.3		고도성장기	90	12.8
	없음	75	10.7		성숙기	15	2.1
				쇠퇴기	1	.1	

IV. 연구 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4개의 변수 모두가 기준치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0.933,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0.834, 창업몰입은 0.911 그리고 창업성과는 0.894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들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의 타당도는 세 단계에 걸쳐 검증하였다. 첫째, 변수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변수에 대한 고유치는 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비율은 65.358%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의 요인부하량 값은 모두 0.5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측정문항들 간의 중복된 문항은 발견되지 않아 변수의 구성개념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두 번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의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대부분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chi^2(df)=855.308(185)$, $p=0.000$, $\chi^2/df=4.623$, $RMR=0.087$, $GFI=0.897$, $AGFI=0.864$, $NFI=0.908$, $IFI=0.927$, $TLI=0.917$, $CFI=0.927$, $RMSEA=0.072$, $LO90=1.229$, $HI90=4.489$), 표준화된 추정치는 모두 0.7이상, CR 값은 1.96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한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 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확인한 결과, 변수의 복합신뢰도는 0.884에서 0.935로 나타나 기준치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 값은 0.508에서 0.793으로, 모든 변수들이 기준치 0.5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의 집중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세 번째는 변수들의 판별타당도에 관한 것으로, Fornell과 Larcker(1981)는 변수의 상관관계 계수가 AVE 제곱근 보다 낮아야 판별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제안한 변수인 정부지원 사업의 만족도, 창업가의 사업화역량,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의 상관계수와 AVE 제곱근의 비교 결과는 Fornell & Larcker(1981)가 요구하는 판별타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들은 신뢰성과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표3> 변수의 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1	2	3	4
사업화 역량	제품·서비스 판매할 유통망 확보	.850	.047	.225	.121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요기술 보유	.850	.055	.196	.113
	신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 보유	.838	.058	.268	.092

	시장에 출시할 수준의 능력 보유	.829	.051	.109	.156
	고객의 구매 요건을 갖춘 제품·서비스	.813	.032	.177	.108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서비스임	.804	.080	.210	.145
	제품·서비스의 시장요구에 적합한 차별화 역량	.700	.015	.012	.239
	제품·서비스의 시장확장 가능성	.697	.055	.211	.034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판로,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 만족	-.020	.731	.015	.016
	정책자금 지원 만족	.014	.710	.050	.062
	사업화 지원 만족	.048	.698	.087	.031
	멘토링, 컨설팅 지원 만족	.120	.692	.011	.036
	창업교육 운영 및 지원 만족	.101	.692	-.001	-.020
	창업행사, 네트워크 지원 만족	-.022	.686	.012	.030
	R&D지원 만족	.049	.642	-.103	.068
	시설, 공간 지원 만족	.017	.565	.258	-.131
창업몰입	창업 활동에 대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기쁨	.332	.026	.843	.173
	창업 활동에 매우 깊게 몰두함	.405	.082	.808	.162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창업 활동임	.455	.089	.766	.110
창업성과	창업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	.295	.053	.193	.879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스스로 자부함	.440	.053	.190	.811
고유치		7.717	3.568	1.307	1.134
누적분산비율		36.746	53.736	59.957	65.358
Cronbah's α		0.933	0.834	0.911	0.894

<표4>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S.E.	C.R.	P	AVE	복합 신뢰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사업화만족_1	0.849				0.508	0.891
	네트만족_1	0.719	0.071	13.660	0.000		
	판로만족_1	0.722	0.066	14.616	0.000		
	RD만족_1	0.712	0.068	12.788	0.000		
	정책만족_1	0.662	0.072	14.415	0.000		
	멘토만족_1	0.692	0.077	14.167	0.000		
	시설만족_1	0.689	0.065	11.588	0.000		
	교육만족_1	0.639	0.067	14.015	0.000		
창업가의 사업화역량	사업화역량7	0.894				0.647	0.935
	사업화역량6	0.891	0.027	35.519	0.000		
	사업화역량5	0.872	0.028	33.771	0.000		
	사업화역량4	0.807	0.031	28.851	0.000		
	사업화역량3	0.780	0.033	27.070	0.000		
	사업화역량2	0.639	0.042	19.725	0.000		
	사업화역량1	0.668	0.040	21.020	0.000		
	사업화역량8	0.844	0.032	31.524	0.000		
창업몰입	창업몰입1	0.871				0.775	0.911
	창업몰입2	0.906	0.031	32.126	0.000		
	창업몰입3	0.864	0.030	29.986	0.000		
창업성과	창업성과1	0.808	0.040	21.825	0.000	0.793	0.884
	창업성과2	0.967					

$\chi^2(df)=855.308(185)$, $p=0.000$, $\chi^2/df=4.623$, $RMR=0.087$, $GFI=0.897$, $AGFI=0.864$, $NFI=0.908$, $IFI=0.927$, $TLI=0.917$, $CFI=0.927$, $RMSEA=0.072$, $LO90=1.229$, $HI90=4.489$

<표5>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AVE	1	2	3	4
1.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	0.508	.712			
2. 창업가의 사업화역량	0.647	.130	0.804		
3. 창업몰입	0.775	.148	.625	0.880	
4. 창업성과	0.793	.107	.551	.472	0.890
평균		4.016	5.514	5.976	4.966
표준편차		.540	.996	1.038	1.381

* 대각선 부분(이탈릭체): \sqrt{AVE}

4.2 가설 검정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 창업가의 사업화역량,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의 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df)=855.308(185)$, $p=0.000$, $\chi^2/df=4.623$, $RMR=0.087$, $GFI=0.897$, $AGFI=0.864$, $NFI=0.908$, $IFI=0.927$, $TLI=0.917$, $CFI=0.927$, $RMSEA=0.072$, $LO90=1.229$, $HI90=4.489$ 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0.8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0.8이상 일반적 기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안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설명력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와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인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은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와 창업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창업가의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추정치: 0.071, CR값 2.123, $p<0.05$).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와 창업몰입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표준화된 추정치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개별유형(교육만족, 시설만족, 멘토만족, 사업화지원만족, 정책만족, R&D지원만족, 판로지원만족, 네트워크만족)과 창업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6> 참조). 가설 2는 창업가의 사업화역량과 창업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은 창업몰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추정치: 0.688, CR값: 19.002, $p<0.05$). 특히, 정부의 지원사업 만족도 보다는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3은 창업몰입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창업몰입은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추정치: 0.550, CR값: 12.606, $p<0.05$).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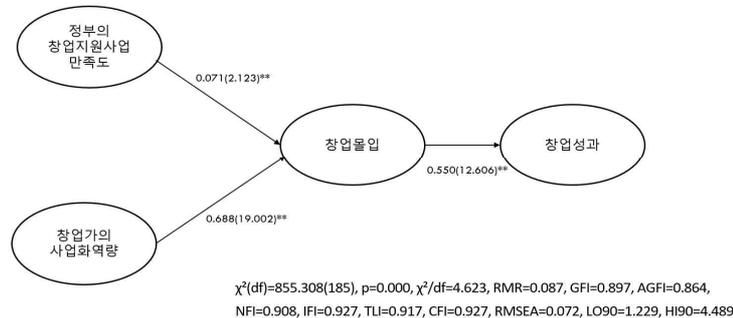


그림2.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결과

<표6>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와 사업화역량의 효과분석 결과

창업단계	경로	Estimate	S.E.	C.R.	P
전체 (n=701)	정부지원 사업 만족 → 창업몰입	0.071	0.065	2.123	0.034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0.688	0.035	19.002	0.000
	창업몰입 → 창업성과	0.550	0.055	12.606	0.000
창업기 (n=123)	정부지원 사업 만족 → 창업몰입	0.155	0.100	2.199	0.028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0.750	0.071	9.177	0.000
	창업몰입 → 창업성과	0.657	0.129	7.263	0.000
초기성장기 (n=283)	정부지원 사업 만족 → 창업몰입	0.025	0.125	0.452	0.651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0.659	0.056	11.063	0.000
	창업몰입 → 창업성과	0.501	0.092	6.527	0.000
데스벨리 (n=189)	정부지원 사업 만족 → 창업몰입	0.089	0.140	1.368	0.171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0.656	0.078	9.523	0.000
	창업몰입 → 창업성과	0.498	0.094	6.171	0.000
고도성장기 (n=90)	정부지원 사업 만족 → 창업몰입	-0.042	0.132	-0.512	0.608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0.813	0.117	7.219	0.000
	창업몰입 → 창업성과	0.585	0.146	4.742	0.000

$\chi^2(df)=855.308(185)$, $p=0.000$, $\chi^2/df=4.623$, $RMR=0.087$, $GFI=0.897$, $AGFI=0.864$,
 $NFI=0.908$, $IFI=0.927$, $TLI=0.917$, $CFI=0.927$, $RMSEA=0.072$, $LO90=1.229$, $HI90=4.489$

구체적으로, 가설 1a, 가설 2a 그리고 가설 3a는 창업기업들의 성장단계별(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가/데스벨리기, 고도성장기)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가설 1a는 창업성장단계별(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가/데스벨리기, 고도성장기)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 만족도(교육, 시설, 멘토링, 사업화지원, 정책, R&D지원, 판로지원, 네트워크)가 창업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것이다. 분석결과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성장단계별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유형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에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 모두가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초기성장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스벨리 단계와 고도성장기 단계에서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도성장기에는 멘토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 창업몰입의 관계를 확인하여 창업성장 단계별로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중요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기에는 시설만족, 멘토만족, 사업화지원만족 그리고 R&D지원만족 등이 창업가의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초기성장기에는 교육만족, 시설만족, 사업화지원만족 그리고 네트워크 만족 등이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체가 즉 데스벨리 단계에서는 교육만족, 시설만족, 멘토만족, 사업화지원만족, 정책만족, 판로지원만족 등이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도성장기 단계에서는 멘토만족 만이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창업성장 단계별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a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창업성장단계별 창업가의 사업화역량과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2a와 가설 3a는 기각되었다. 즉 가설 2a는 창업성장단계별(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가/데스벨리기, 고도성장기)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은 창업성

장단계 전체에서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설 3a는 창업성장단계별 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데스벨리기, 고도성장기) 창업몰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몰입은 창업성장단계 전체에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성장단계별로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몰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만이 창업성장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가의 사업화역량과 창업몰입은 창업성장 전 단계에 모두 성공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창업성장단계 가운데,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정체기/데스벨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초기성장기에서는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시설 등이 창업몰입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도성장기 단계에서는 멘토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창업성장단계별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원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표7> 참조).

<표7>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효과 분석 결과

창업단계	경로	Estimate	S.E.	C.R.	P
창업기 (n=123)	교육만족_1 → 창업몰입	-0.029	0.050	-0.779	0.436
	시설만족_1 → 창업몰입	0.144	0.050	3.885	0.000
	멘토만족_1 → 창업몰입	0.066	0.044	1.775	0.076
	사업화만족_1 → 창업몰입	0.098	0.048	2.643	0.008
	정책만족_1 → 창업몰입	0.053	0.047	1.435	0.151
	RD만족_1 → 창업몰입	-0.069	0.049	-1.872	0.061
	판로만족_1 → 창업몰입	0.003	0.051	0.086	0.931
	네트만족_1 → 창업몰입	-0.040	0.047	-1.094	0.274
초기성장기 (n=283)	교육만족_1 → 창업몰입	-0.105	0.079	-1.816	0.069
	시설만족_1 → 창업몰입	0.158	0.088	2.728	0.006
	멘토만족_1 → 창업몰입	0.057	0.067	0.982	0.326
	사업화만족_1 → 창업몰입	0.101	0.080	1.741	0.082
	정책만족_1 → 창업몰입	-0.005	0.078	-0.086	0.931
	RD만족_1 → 창업몰입	-0.002	0.084	-0.034	0.973
	판로만족_1 → 창업몰입	-0.060	0.087	-1.032	0.302
	네트만족_1 → 창업몰입	0.062	0.075	1.067	0.286
데스벨리 (n=189)	교육만족_1 → 창업몰입	-0.161	0.101	-2.413	0.016
	시설만족_1 → 창업몰입	0.150	0.099	2.253	0.024
	멘토만족_1 → 창업몰입	-0.116	0.089	-1.737	0.082
	사업화만족_1 → 창업몰입	0.190	0.091	2.848	0.004
	정책만족_1 → 창업몰입	0.156	0.097	2.342	0.019
	RD만족_1 → 창업몰입	-0.050	0.098	-0.745	0.456
	판로만족_1 → 창업몰입	0.190	0.104	2.847	0.004
	네트만족_1 → 창업몰입	-0.048	0.092	-0.715	0.475
고도 성장기 (n=90)	교육만족_1 → 창업몰입	-0.022	0.140	-0.214	0.830
	시설만족_1 → 창업몰입	0.153	0.108	1.523	0.128
	멘토만족_1 → 창업몰입	0.176	0.104	1.744	0.081
	사업화만족_1 → 창업몰입	-0.064	0.121	-0.637	0.524
	정책만족_1 → 창업몰입	0.063	0.105	0.630	0.529
	RD만족_1 → 창업몰입	0.034	0.099	0.341	0.733
	판로만족_1 → 창업몰입	-0.132	0.104	-1.310	0.190
	네트만족_1 → 창업몰입	-0.096	0.101	-0.957	0.339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와 창업성과 간의 관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창업몰입의 매개효과를 가설 4와 가설 5로 제안하였다. 매개효과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 추정치와 표준오차를 바탕으로 Sobel test를 통해 검정하였으며, 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창업단계별 창업몰입의 매개효과 모두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8>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와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창업몰입의 매개효과는 전체 데이터(추정치: 1.085, $p>.05$)를 비롯하여 창업성장 단계별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8개 유형의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개별적 요인과 창업몰입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8가지 창업지원사업 유형은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창업자들의 창업단계와 개인적 역량에 따라 창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창업가의 사업화역량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서 창업몰입의 매개효과(추정치: 8.91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어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표8> 창업몰입의 매개효과(Sobel test)

창업단계	Path	Sobel test Statistic	p값
전체 (n=701)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 창업몰입 → 창업성과	1.085	0.277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 창업성과	8.912	0.000
창업기 (n=123)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 창업몰입 → 창업성과	1.482	0.138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 창업성과	4.587	0.000
초기성장기 (n=283)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 창업몰입 → 창업성과	0.199	0.841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 창업성과	4.912	0.000
데스밸리 (n=189)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 창업몰입 → 창업성과	0.631	0.527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 창업성과	4.482	0.000
고도성장기 (n=90)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 창업몰입 → 창업성과	-0.317	0.751
	사업화역량 → 창업몰입 → 창업성과	3.471	0.000

<표9> 창업성장단계별 평균차이 분석결과(ANOVA)

변수	창업단계	N	평균	표준 편차	F	p
창업 지원사업 만족도	창업기	123	4.020	.601	.197	.898
	초기성장기	283	4.034	.484		
	정체기 또는 데스밸리	189	3.998	.548		
	고도성장기	90	4.000	.623		
사업화 역량	창업기	123	5.330	1.081	6.917	.000
	초기성장기	283	5.583	.949		
	정체기 또는 데스밸리	189	5.329	1.018		
	고도성장기	90	5.817	.869		
창업몰입	창업기	123	6.084	1.011	3.700	.012
	초기성장기	283	5.988	1.030		
	정체기 또는 데스밸리	189	5.778	1.117		
	고도성장기	90	6.159	.897		
창업성과	창업기	123	4.902	1.471	9.665	.000
	초기성장기	283	4.993	1.366		
	정체기 또는 데스밸리	189	4.619	1.373		
	고도성장기	90	5.544	1.096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 사업화역량,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창업기(평균: 4.020), 초기성장기(평균: 4.034), 정체기(평균: 3.998), 고도성장기(평균: 4.000) 등 모든 단계에서 창업지원사업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4점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는 창업기에 상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창업단계에 따른 차이는 전혀 확인되지 않아 향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조한 원인을 확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화역량과 창업몰입은 창업단계 가운데 고도성장기에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가들의 긍정심리가 작용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체기/데스벨리 단계에서 창업가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 사업화역량, 창업몰입 그리고 창업성과 등 모든 변수에서 낮게 나타났다(<표9> 참조). 이러한 결과는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단계별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제도를 구상하는 데 시사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창업성장단계에 따른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과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인 사업화역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성장단계는 창업기, 창업성장기, 정체기, 고도성장기 등 네 가지 단계의 창업기업들을 비교하였으며,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시설공간, 정책자금, 사업화 지원, R&D지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 그리고 창업행사·네트워크 등 8가지 유형을 창업성장단계별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효과는 창업몰입과 창업성과로 제안하여,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몰입을 통해 창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들의 창업성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창업성장단계 가운데 창업기에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동시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성장기, 정체기(데스벨리), 고도성장기에는 정부지원 사업 만족도는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단계별로 중요한 지원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창업기에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가운데 공간, 멘토링, 사업화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장기에는 교육, 시설, 사업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스벨리 단계에는 특히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데스벨리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5.1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예비창업자 단계에서 창업초기, 성장기, 데스벨리, 고도성장기 등 창업의 전 단계에 걸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업화역량을 창업가정신을 포함하여 조직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들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역량과 새로운 시장에 침투 및 확대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제품/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시장의 침투 및 확대할 수 있는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변수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의 실질적 평가이다. 따라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활용한 비교적 초기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창업교육과 멘토링에 대한 평가를 주로 다

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8가지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모두 적용하였고, 창업기업의 창업단계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여 이론적 모델로 구축하였다는 데 있어 향후 연구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8가지 유형의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창업단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단계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창업지원 유형별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창업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조정을 통해 창업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단계별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사업 유형 가운데 창업가들의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창업단계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단계별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 가운데 집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창업기에는 창업보육공간, 멘토링, 사업화지원, R&D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성장기에는 창업보육공간과 사업화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스벨리 단계에는 8가지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대부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데스벨리 단계의 창업기업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데스벨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도록 예방하고, 데스벨리 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이 단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업지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가운데, 멘토링/컨설팅은 창업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창업의 전 단계에 걸쳐 멘토링과 컨설팅은 창업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멘토링에 대한 창업가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 명의 멘토가 여러 명의 멘티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아이টে에 적합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창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업지원 사업 가운데 멘토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통합적인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창업가가 다양한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연계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공한다면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성과가 높은 창업지원 사례를 모델로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2 연구한계 및 향후 방향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조사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방문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어 전국 타 시도의 창업자들의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사업은 권역별로 거의 동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샘플이 특정 지역적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기술기반 창업자들로 구성되어 일반 창업가들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또한 규모가 크지만 그들의 응답은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상공 창업자들과 같은 일반 창업가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과 사업화역량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등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더욱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창업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기적인 만족도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집중되었다.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 단계부터 고도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들의 사업화역량 및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종단적 연구로 접근한다면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를 비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로 창업가들의 감정에 집중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을 제품·서비스 개발능력과 새로운 시장의 침투 및 확대 가능성에만 집중하였는데, 보다 다양한 차원의 사업화역량을 적용하여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미스매칭 또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더욱 면밀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본 연구에서는 8가지 유형의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지원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8가지 창업지원 요소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정부지원 사업의 만족도와 창업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한다면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고경선, 남정민(2023).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ERIS모델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8(6), 71-86.
- 김용태, 박재환(2013). 사회적기업 창업성과 영향요인 연구. *경영교육연구*, 28(2), 303-327.
- 김재홍, 최낙희, 김재철(2021). 소상공인의 창업가역량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쟁자 지향성 매개효과와 사회지지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6(3), 128-156.
- 김종식(2017).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건설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근, 이충석, 김진수(2014). 기술창업기업 초기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연구*, 21(5), 63-86.
- 박순규, 이흥배, 오태원(2015). R&D지원 유용성 인지, 기술혁신 및 사업화역량 관계에서의 긍정적 심리자본 매개효과. *의사결정학연구*, 23(2), 1-20.
- 안태욱, 강태원(2019).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 동적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4), 39-49.
- 유상정, 양해술(2016). 시니어 창업의사결정유형과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4), 106-121.
- 이승현(2014). *창업자의 특성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훈, 송유진(2019). 정부지원자금이 벤처기업의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부역량의 매개효과와 기업성장단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31-46.
- 장영혜, 김판수, 이정혜(2021). 정책자금사용에 따른 데스벨리단계 창업기업의 기술창업역량과 창업몰입 및 창업성과 간의 관계. *비즈니스융복합연구*, 6(3), 1-7.
- 장영혜, 김판수, 장인성(2019).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환경인식,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정도가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5), 115-125.
- 장영혜, 이정혜, 김판수(2020). 정부의 창업지원 공정성이 만족도 및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차이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109-120.
- 정경희(2020).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5(1), 59-70.
- 조창현, 양동우(2022). 예비 창업자의 성격특성이 몰입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7(5), 177-199.
- 중소벤처기업부(2024). *2024년 창업지원사업통합공고*. 2024년 1월 5일.
- Chandler, G. N., & Jansen, E. (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ovin, J. G., & Slevin, D. P. (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5-28.
- Csikszentmihalyi, M. (2009). The promise of positive psychology. *Psihologijske Teme*, 18(2), 203-211.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Johnson, D. W., & Johnson, R. T. (1990). Cooperative learning and achievement. In S. Sharan (Ed.), *Cooperative Learning: Theory and Research*, Praeger Publishers.
- Kanungo, R. N. (1982). Measurement of job and work involv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3), 341-349.
- Mahmood, R., & Hanafi, N. (2013).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f women-own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Malaysia: Competitive advantage as a medi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4(1), 82-89.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 Parasuraman, A., Zeithaml, V. A., & Berry, L. L. (1994). Alternative scales for measuring service quality: A comparative assessment based on psychometric and diagnostic criteria. *Journal of Retailing*, 70(3), 201-230.
- Williams, L. J., & Anderson, S. E. (1991).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predictor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and in-role behaviors. *Journal of Management*, 17(3), 601-617.
- Yap, C. M., & Souder, W. E. (1994). Factors influencing new product success and failure in small entrepreneurial high-technology electronics firms.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11(5), 418-432.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Satisfaction and Business Capabilities by Start-up Growth Stage

Yoon, Bok-man¹⁾

Jang, Young-hye²⁾

Abstract

This study confirms the relative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at each growth stage of start-up companies and entrepreneurs'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on start-up commitment. The start-up growth stage was divided into start-up stage, initial growth stage, stagnation stage, and high growth stage, and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was divided into eight types(entrepreneurship education, mentoring/consulting, facility space, commercialization support, policy funds, sales channels/marketing/overseas expansion, R&D support, and start-up events/network) and satisfaction was evaluated. The data used was the results of the Daegu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s survey on entrepreneurship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ntrepreneur's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re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entrepreneur's commitment to starting a business than the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at relatively important factors in entrepreneurship immersion differ depending on the start-up stage. During the start-up period,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entrepreneurs' commitment to starting a business,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had no effect on the start-up commitment after the start-up growth stage.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relatively important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s by start-up growth stage and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start-up facilities can increase start-up commitment during the start-up stage, and that start-up facilities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are important during the early growth stage. And in the Death Valley stage, startup facilities, commercialization support, and policy funds were confirmed to be relatively important factors, and in the high growth stage, mentoring was confirm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entrepreneurship immer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not only contribute theoretically to building entrepreneurship theory, but also determine the size and effective support plan for the government's entrepreneurship support project for each growth stage of startup companies, and help organizations that operate entrepreneurship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startup support programs. It will hav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anagement measures.

Keyword: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Business Capability, Start-up Involvement, Start-up Performance, Start-up Growth Stage

1)Author, Professor of Kyungwoon University, bokmanii@ikw.ac.kr

2)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Professor of Kyungwoon University, yhj0918@ikw.ac.kr

제1 저자 소개

- 윤복만 (Yoon, Bok-man)
- 경운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산업대학원 원장, 경영학 박사
- 한국전략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산업정보학회 부회장, 대구경북 평생교육원장협의회 회장, 구미푸드축제 평가위원, 구미시 인사위원, 한국 Fun경영학회 회장 등
<관심분야> : Fun 마케팅, 창업교육, 감성마케팅, 리더십 등

교신 저자 소개

- 장영혜 (Jang, Young-hye)
-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Start-up기업 자문위원
-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이사, (사)도시정책연구소 비상임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자문위원
<관심분야> : 창업교육, 브랜드마케팅, 마케팅전략, 연구방법론, 소비자행동 등